

연합뉴스

'대세' 펭수,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

고현실 입력 2019.12.26 11:20 수정 2019.12.26 11:36

펭수·이수정 교수 등 시민 대표 11명 타종..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EBS 인기 캐릭터 펭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EBS 캐릭터에서 국민 스타로 떠오른 펭수가 2020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을 울린다.

서울시는 펭수를 비롯한 시민 대표 11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내년 1월 1일 0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대표 11명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를 빛낸 인물들로 추천받은 이들이다.

펭수는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뿐 아니라 유튜브와 각종 방송에서 맹활약하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도 타종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5·18광주민중화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선 이철우 씨, 6·25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 학도 병으로 참전한 강영구 씨,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쓴 김동현 변호사,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불링 다관왕 신다운 선수, 1세대 벤처기업인 한병준 씨,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미하엘 라이더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다문화가정 대표 이하은 씨, 평창동계올림픽 VIP 수행 통역 봉사자 이서윤 씨가 시민 대표로 나선다.

이들은 1일 0시부터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33번 울리게 된다.

타종 행사는 tbs교통방송과 라이브서울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타종 행사를 위해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천로 등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주변을 지나는 버스도 임시 우회한다.

타종행사를 본 뒤 귀가하는 시민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은 연장된다.

지하철은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하고, 보신각 주변을 지나는 시내버스 42개 노선은 인근 정류소에서 차고지 방향으로 다음 날 오전 2시 전후로 출발한다. 종로를 지나는 올빼미버스 7개 노선(N15, N26중앙, N26강서, N37진관, N37송파, N62면목, N62양천)은 정상 운행한다.



31일과 내년 1월 1일 종로 보신각 주변 통제구간 및 우회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타종 행사에 8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31일 오후 9시부터 행사 종료까지 보신각 인근에 소방안전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행사장 주변과 외곽에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 총 25대와 소방공무원 24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종각역 등 인근 지하철역 5곳의 안전요원도 3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아울러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폭죽 소지자와 폭죽 판매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BTS를 뛰어넘는?...해외 언론도 놀란 핑수의 인기 / 연합뉴스 (Yonhapnews)



okko@yna.co.kr